

(선교를 위한 자동차 구입을 위한 후원)  
 2022년에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희 선교지에 자동차 구입을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학교 미니 버스는 2005년산으로 40만 km밖에 달리지 않았으나 매일 아침과 오후에 아이들을 나르기 위해 비포장인 험로를 달리고 있었으며 우기나 비라도 오면 진흙 받을 힘겹게 달리기 매주마다 고쳐서 사용하긴 하지만 거이 폐차를 시켜야 할 것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2005년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SUV로 70만 km를 달렸고 지금 엔진부터 총체적으로 고장이 나서 차고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이 SUV는 2년 전에 엔진을 수리했으나 지금은 엔진에 이상이 다시 감지되었고 지금은 기어박스 오일 누유와 파워 운전대의 오무 기어에 문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저희 선교지는 대중 교통이 노선이나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라 자동차에 이상이 있거나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곳입니다. 더구나 수시로 강도로 돌변하는 원주민들로 인해 자가용없이 이동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살면 살수록 더 단단한 자동차의 필요성을 느끼는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저의 은행 계좌와 PayPal 계좌를 올려 놓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 <기도 제목>**
1. 이은원 선교사와 최정미 선교사, 원주민 동역자들의 영, 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 남아공 이은원, 최정미 선교사
  2. 2022년의 선교를 위한 기도와 재정의 후원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3. 이은원 선교사의 매달 가족 생활비와 자녀의 대학 학비가 채워지도록
  4. 선교 사역용 자동차 교체를 위하여 많은 후원자가 생기도록
  5. 교회, 학교, 구제 사역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6. 교회, 학교 건축을 위한 후원자가 일어나도록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를 자랑하며 남아공에서 이은원, 최정미 선교사 가족이 드립니다.

인도 이야기

안녕하세요.  
 언제나 사랑의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에게 문안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잘 견디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며 감사 드립니다.

유채꽃이 만발한 이곳은 아름답습니다. 낮에도 쌀쌀하고 밤에는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찬양을 부르며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렸고 또 way maker 이 찬양을 부르며 기적을 행하시고 치료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꿈은 곧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지역은 시장과 가게가 열리고 거리마다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무엇보다 결혼식을 하는 곳마다 폭죽 소리와 악단의 음악소리가 들리고 거리마다 신앙을 태운 말과 사람들이 춤을 추며 지나갑니다. 쇼핑 몰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힌두들의 크리스마스는 몇 년 전부터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한 휴일이 되었습니다.

12월 첫 주부터 성탄행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가 열리는 마을에서 신학생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것들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며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1년에 한 번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마을에서는 시작을 위해 찬양과 율동을 하는 도중에 쫓겨나기도 했지만 성탄절 당일 그 마을아이들과 다른 지역의 아이들과 어른들도 함께 초청하여 S마을에서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했습니다. 힌두인 마을 주민들도 복음을 들었고 함께 음식도 나누니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인도 이곳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 1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이 번 학기에도 BPU 신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강의 외에도 자원하는 학생들을 모아 반주법을 가르치고 찬양팀을 결성하려고 2주전부터 하나 하나 가르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지도하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결한 마음의 그릇으로 예수님을 담아 복음을 전하며 새로운 한 해를 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더욱 평강 하시길 기도합니다.

- 인도 남국회 선교사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스웨덴 김명자 선교사- 철허암이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몸속의 모든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터키 양창모 선교사-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터키 최지섭 이해영 선교사- 이해영 선교사님은 척추끝 부분 통증이 심하여 MRI 검사 결과 줄어든 암으로 인해 뼈부분이 연약하여 통증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아르헨티나 강지애 선교사님이 유방암이 림프로 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5. 강명철 선교사 - 영적 전쟁에서 승리 할수 있도록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도록.
6. 이지향선교사 - 척추 협착증과 발 족저근막염이 치유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7. 김에스더/김승호 목사님: 지난 수요일 (1월 19일) 갑자기 위독해져서 현재로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뇌에 종풍이 많이 온 것 같다고 합니다. 폐가 빨리 회복되고 자가 호흡이 빨리 이루어질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은혜한인교회 선교 소식

2022년 1월 30일 선교사 현황 53개국 321명 자체파송 74%

GOD'S WORD, IN EVERY LANGUAGE, IN EVERY LIFE

샬롬!!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와 모어 성경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시는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성탄절과 연말,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 6-7).

한국과 반대의 계절을 가지고 있는 파푸아뉴기니는 우기에 접어들어서 기온도 더 올라가고 거의 매일 비가 내립니다. 우기라서 가장 감사한 것은 마음껏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보호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곳이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더 민감하게 깨닫게 되고 더 많은 감사와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기가 끝나갈 무렵부터 현지 인들은 여러 가지 농작물을 더 많이 심었습니다. 우카롬파의 시장은 매주 수요일 아침 약 2시간 동안만 열리기 때문에 저희도 집 앞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잎채소는 일주일 동안 보관하다 보면 상해서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호박, 오이, 상추, 부추, 깨, 파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채소들은 거름을 주고 벌레도 잡아 주고 잡초도 뽑아 주는 등 정성을 들여도 잘 자라지 않지만, 잡초는 여거저기에서 싹이 나고 쑥쑥 자라서 뽑아내도 며칠 뒤엔 또 다른 싹이 나와 있습니다. 잡초를 보면서 세상의 염려가 시시때때로 싹이 나고 자라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파푸아뉴기니 SIL의 문서보관실에는 현지인이 자신들의 모어 성경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문화교육 자료, 문화와 언어에 관련된 문법 논문/소책자, 사전들이 있습니다. 김운용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장소에는 문화와 언어에 관련된 문법 논문/소책자가 있는 곳입니다. 짧게는 며칠 전 자료로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60년 이상 된 자료도 있습니다. 이 자료실에 있는 자료 중에 칼루리어, 카마노어, 카나시어, 칸다워어, 카르카르유리어, 카수아어, 코테어, 콤바어, 코바어, 우아레어 자료들을 스캔해서, 보정하고, PDF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부족마다 자료의 양, 정리 정도와 보존 상태가 달라서 한 부족 당 며칠에서 몇 주 걸쳐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언어 자료들을 통해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부족의 영혼들을 말씀으로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신실하게 헌신했는지를 보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크레투스가 태어나고 자란 섬은 우카롬파에서 레이까지 차로 4시간, 레이에서 마을까지 배로 12시간이 걸리는 외딴섬입니다. 크레투스는 파푸아뉴기니 대학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현지인 언어학 자문위원이 되기 위해 우카롬파에서 언어학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부족어 사전을 만들고 싶어 해서 김운용 선교사가 사전 만드는 앱을 깔아 주고 사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주 작은 섬에서 태어난 크레투스를 부르신 하나님,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꿈에서조차 해보지 않았던 저희를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 모어 성경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시는 동역자님들을 부르신 하나님,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남영미 선교사는 위 통증으로 일주일 정도 미음과 흰죽만 먹었습니다. 복용할 약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만 구할 수밖에 없었던 남영미 선교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건강을 위해 좀 더 다양하고 풍성한 음식 재료가 있었으면 했던 것에 대해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식사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변이되고 확산되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삶의 중심이 무너진 것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시 예전처럼 평안하고 평범했던 일상으로 회복되면 지난날에는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에 따라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기도로 함께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사랑하는 교회와 동역자님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기도제목 있으시면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보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 <기도제목>**
1. 모어 성경이 없는 영혼들을 위해 성경이 지속적으로 번역되게 해 주시고, 말씀이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여 주세요.
  2. 파푸아뉴기니를 보호해 주시고 치안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세요.
  3. 남영미 선교사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루즈 선교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성경 번역할 부족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하신 부족으로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성경 번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간구하여 주세요.
  4.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신 달란트와 지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세요.
  5. 아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장래와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여 주세요.

- 파푸아뉴기니아 김운용, 남영미 선교사



### 광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 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2021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한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이제는 총소리나는 전쟁도 있지만, 소리는 안 나지만 감당하기 힘든 시련들이 나라에 상관없이 그 어느 곳이나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도전이 영적인 환경에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예배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교회가 폐쇄되며, 극심한 검열과 통신망을 통한 감시와 이동의 제한 때문에, 비자취득도 순조롭지 못하고, 이동도 자유롭지 못하여, 그 어느때보다 선교 활동과 교회의 활동에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저희 선교지를 붙들고 계시고, 세워진 현지 사역자들은 변함없이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사역을 감당하며,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교회와 학교사역에 소속된 수 천여명의 교인들과 학교 학생, 수 백여명의 사역자의 가족과 자녀들이 한 사람도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없이 지내온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새해에도 더 기쁜 복음전파 소식을 들려 드리길 소원하며 새해 인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크리스마스는 OOOO 크리스찬들에게 1년에 단 한 번 있는 대 명절입니다. 10여개 교회 및 학교마다 각양각색의 행사를 다함)

<기도제목>

1. 3~5개월간 기다리고 있는 두 선교사의 입국 및 체류비자가 속히 나오게 하소서
2. 세워진 사역자들이 각 학교 교회에서 그 동안 자라난 청소년들을 영.육으로 더 잘 양육하여 재생산 할 수 있게 하소서
3. 비즈니스센터와 선교관이 잘 정리되어 비용과 시간 환경이 최적화될 수 있게 지혜를 주소서
4. OOOO 전역의 미전도 지역에 복음사역자들이 골고루 더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153군지역마다 최소한 1명)



가난한 학생들에게 식량 배분



약 500여 아동들에게 식량 배분

- 파키스탄 정OO & OO 선교사



까수르은혜교회.미라클스쿨 성탄예배및 행사



필립스쿨학교.교회의 성탄예배 및 행사



노벨스쿨 성탄행사



뉴라이프스쿨 성탄행사

이제 2021년의 마지막을 알리는 12월 끝에서 남아공 시골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지난 2년 동안 CO-VID19로 인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희 역시 남아공 정부의 정책에 따라 모든 교회 사역과 학교 운영을 중단하고 각자 집에서 모범 적으로 생활하도록 지도하며 Whatapp를 통해 정기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도 저희 교인 3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교회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소천하신 교인의 집에서 손님들에게 마스크와 소독제를 뿌리면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특히 말라위를 방문 중인 루이스 목사님의 부인인 낸시 사모님이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소천했고 남편인 루이스 목사님은 말라위에서 말라리아가 재발되어 오래 동안 오지 못하는 중에 남편없이 장례를 치뤄야 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의 모든 장례식과 타 교인의 모든 장례식은 아무 착오없이, 또한 장례식 이후에 감염자들의 발생없이 잘 치루었습니다.

(학교 소식)

학교 운영에서는 저가 운영하고 있는 “신학 대학”은 지난 2년 동안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이며 최 정미 선교사가 교장으로 있으며 운영하고 있는 “헤세드 프리 스쿨”은 2020년 3월부터 문을 닫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21년 1월에 다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 상태에서 당시에는 갑자기 몰아친 상황이었기에 바이러스용 소독제, 피부에 닿지 않고 축적이 가능한 체온계 구입부터 어려웠던 시간을 체험하며 매일 아침, 그리고 학교 생활 시간 안에서 수시로 손을 소독하고 체온을 체크하면서 “기독교 학교”라는 이름으로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모든 아이들에게 어린 나이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함께 나라를 위해, 지역 사회를 위해, 각자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없이 잘 운영해 왔고 지난 12월 10일에 주님의 은혜로 멋지고 아름답게 많은 분들의 축복을 받으며 졸업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소식)

저희 교회는 소수의 원주민 교회입니다. 지난 펜데믹 기간 동안 3차례나 교회에 도둑이 난입해서 기물이 파괴되고 창문이 7장이 깨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침입한 도둑이 교회 사무실로 진입하려고 안쪽에 설치된 교회와 사무실 통로의 문을 부수려고 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포기했습니다. 그 동안 교회의 지붕을 통해, 창문을 통해, 뒷문을 통해 진입을 시도했지만 주님께서 성공하지 못 하도록 막아 주셨습니다. 사실 교회와 사무실의 기재가 이미 없어진 상태인지라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해도 가지고 갈 것이 없고 교회 안에도 그 동안 다 도둑을 당해서 불품없는 작은 강대상과 성도들이 앉을 의자 밖에 없습니다.



(구제 사역)

저희 구제 사역은 올 해 2차례 실시했습니다. CO-VID19 기간동안 빈민층의 생활은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최정미 선교사나 이은원선 교사가 개인적 만남으로 도와주고 있었지만 CO-VID19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치게 하고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에 50가정, 두번째 57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카톡과 페이스북을 통해 후원을 요청했을 때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하루만에 많은 사람들의 필요한 음식들을 제공받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흑인 마을의 변두리라서 타운으로 나오기가 여의치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에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시작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희 교회의 재정 문제나 인력 문제가 쉽지 않기에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담요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영원히 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지교회 여성모임 메시지]**

현지교회의 담임목사님께서 저에게 여성모임 메시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인도로 오게 된 극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현지 성도님들과도 너무나 나누고 싶었던 차에 감사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통역을 맡은 사모님은 이 간증을 먼저 접한 것이 자신에게 복이라고 얘기해 주고, 메시지를 접한 성도님들 중에서도 특별한 인도하심이 들어 있는 간증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는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땅, 인도에서, 생각지 못한 순간에, 생각지 못한 자리에서 이런 나눔을 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인도는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날마다 증가하여 오늘 14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80%가 오미크론 확진자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마하라슈트라 주에 있는 뭄바이를 비롯하여 푸네에도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모임 수를 제한하고 식당이나 극장 등등에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이번주 부터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오미크론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작년 4월~6월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 하며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지인을 만나며 사역하는 가운데 방역에 힘쓰고 있으며 조심하고 있습니다. 사역 가운데 저희 가족과 사역자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4월, 5월에 비자 갱신과 교회 방문을 위해서 저희 가족이 한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비자 갱신이 잘 이루어지고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LA 은혜교회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인도 한준기 선교사

**<기도 제목>**

- 1)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안정을 되찾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 2) 방과후 학교가 다시 재개되어 아이들이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도록.
- 3) 한국어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 4) 뽕뜨라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 5) 도시락 사역과 치료 사역을 통하여 노숙인들과 어려운 이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영접하도록
- 6) 오미크론 가운데 저희 가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역하게 하소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사랑의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역자님 한 분, 한 분의 믿음과 기도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



2022년 새해, 주님의 은혜가 삶과 사역과 사업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해를 뒤돌아보니 펜더믹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올 해도 결코 멈추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 또한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따라 2022년에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베네수엘라 신학교**

작년 10월 신학교 강의는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250여명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전도 폭발 강의를 듣고, 너무 감사한 일은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학교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올해 첫 신학교 모임은 아직 대면으로 모이기는 힘들 것 같아서 다음주 (17일 - 21일) 한주간 다시 온라인으로 신학교 모임을 하게 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모임에는 선교센터에 모여 서로의 얼굴을 보며 신학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학생 사역**

이 나라는 아직 대학생 사역이라는 부분이 많이 생소하고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MODU라는 선교단체를 세워 대학생 사역의 모델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저희와 함께 대학생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 교회들의 리더들을 초청해 리더 수련회를 했습니다. 전도가 모든 사역의 시작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지교회들이 대학생 전도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대학생 리더수련회를 통해 교회들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해 집중하는 사역이 바로 이 대학생 사역인 MODU가 잘 정착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이 나라에 대학 사역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학 캠퍼스 마다 주님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 이 나라를 바꾸는 크리스천 리더들도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사역**

계속해서 빈민가 지역에서 어린이 급식 사역과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펜더믹으로 인해 소규모로 모이고 있지만 매주 약 350여명의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어린이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것이니라"



## 24시간 중보기도 사역

11년 전 아마존에서 24시간 중보기도 사역 처음 시작했습니다. 팬더믹 전까지는 베네수엘라 9개 도시에 중보센터가 세워져 교회들이 기도했고 팬더믹 이후로는 온라인에 모여 남미 8개 나라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주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1년 반 전에 필리핀에서 시작한 한인선교사 새벽기도를 통해 여러 나라의 한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1월 10일부터 24시간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이 사역을 시작 할 때 주신 비전은 전 세계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열방에 부흥을 주시고 이 부흥으로 인해 수 많은 영혼들이 구원 받아 선교가 완성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존 작은 도시에서 처음 이 비전을 받았을 때는 믿기 어려웠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고 계심을 봅니다. 교파를 넘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동일하신 주님과 같은 비전안에서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이 ZOOM이라는 (온라인)공동체에 모여 24시간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연합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아마존 선교

저희 옆에서 신실하게 섬기던 조엘 선교사가 이제 베네수엘라 선교센터 관리를 뒤로 하고 주님이 주신 아마존 선교를 위해 12월 아마존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신학교와 대학생사역을 위해 카라카스로 올라오면서 엘리아 선교사가 맡았던 사역이 이제는 엘리아 선교사도 카라카스로 올라와 함께 연합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조엘 선교사가 아마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역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의 첫 부르심인 아마존 사역도 중요합니다. 조엘 선교사가 다시 그곳에 잘 정착해서 현지 교회들과 연합으로 아마존 선교를 꼭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부어 주시고, 특별히 같은 비전을 품은 자매와 속히 결혼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가족 이야기

벌써 저희 아이들이 16살, 13살이 됐습니다. 엄마와 같은 옷을 입기 시작한 예림이와 날이 갈 수록 의젓해 지는 예준이를 보며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아이들로 인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 해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며 경외함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성과 체력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15년 전 1월에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한 번도 부족함 없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 올해도 나가길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올 해가 참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저희 혼자 할 수 없음을 그동안의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동역자님의 섬김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올 해도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 베네수엘라 김 도현, 강미애, 김예림, 김예준 가족 드림

샬롬~!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속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리는 성탄의 기쁨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 하는 설렘이 가득한 요즘, 우리 동역자님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에도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 [오미크론으로 다시 봉쇄되는 인도]

오미크론으로 인해 다시 인도가 부분 봉쇄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확진자 발생수가 1만명 안팎으로 내려왔던 인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뭄바이에서는 2510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21개 주에서 781명의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오미크론 감염자의 70% 가량이 무증상을 보이는 것과 충분하지 않은 검사로 실제 감염자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뉴델리와 일부 주에서 모든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모임이 금지됐고 야간통행금지, 영화관, 체육관 중단 등 여러 방역 조치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비롯하여 인도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고 검사도 예전보다 적게 시행하고, 각종 여러 모임으로 인해 오미크론이 확산될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역가운데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해주시고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인도가 다시 안정을 되찾고 마음껏 주님을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부와 지역교회 사모님들에게 식료품과 사리를]

성탄절을 맞이하여 110명의 과부들에게 사리(인도 전통 여성의복)와 식료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먼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과부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믿지 않는 과부에게 예수님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번 사리는 남인도에서 와서 처음 보는데 보통 사리가 2000루피 정도 해야 괜찮는데 300루피(4700원) 정도 되는 사리 천을 보니 다음에는 더 좋은 천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들에게 더 좋은 사리 천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역교회 사모님들께도 10개의 사리를 전달했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 [한국어 수업 재개]

여러 사정으로 장기 방학 상태에 있다가 10월부터 논의와 학생모집을 시작하여 11월 말에 Basic 1, Basic 2, 2개 반을 열었습니다. 저와의 수업을 잊지 않고 기다렸다가 5-6개월 만에 다시 만난 2반 학생들은 더더욱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 또한 그 학생들에게 말했던 1급 수료 및 완료 시 Certificate를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성탄절이 생일이었던 친구에게 '여자 예수예요?!'라며 한국어로 생일축하하래도 불러주고, 저와 2년 만에 합류한 학생에게도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쳐 주고 서로 열심히 한국어공부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들을 보며 학생들의 열린 마음 안으로 한층 더 다가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항상 검은 히잡 복장으로 수업하는 한 무슬림 여학생은 매번 한 주간의 삶에 특별한 게 없다고 대답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하다, 너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학교 과제와 공부에 매인 학생, 방탄소년단의 열혈팬이라 BTS라는 말만 꺼내도 온 얼굴에 화색이 들고 미소가 번지는 학생, 그저 아무런 소망없이 한류라는데 저렴한 한국어수업 한 번 들어 볼까 하고 시간만 때우는 학생 등등 다양합니다. 이 모든 학생들의 삶과 영혼에 오직 유일한 소망, 예수그리스도가 심겨지고 그리스도의 군대로, 주님을 알고자 힘쓰는 제자로 세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알란디에서 노숙자에게 도시락과 짜이와 마스크와 치료를]

계속해서 알란디 힌두교 사원에 가서 도시락과 짜이를 나누고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미크론과 힌두교 사원 공사로 인해 노숙자가 줄었으나 요즘 다시 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도착한 마스크를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여러 노숙자들이 죽었는데 얼마 전에 오랫동안 치료받던 노숙자가 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가 요즘 많이 아파보였는데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에게 예수님을 말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까? 하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락을 나누어 주거나 상처를 치료해주다 보면 어떤 이들이 감사하다며 제 발에 입맞춤을 하고, 어떤 이들은 "당신은 신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정말 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 신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저는 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신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 [복음만화상영과 성탄선물 및 MFD 성탄후원]

뾰뜨라지 마을과 깔기 빈민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 만화를 상영하고 성탄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아(날이 밝으면 영상을 볼 수 없음) 계속해서 찬양하였는데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따라 부르고 즐거워했습니다. 찬양 가사 가운데 "예수 마씨" (마씨-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려 왕으로, 구원자로 오신 너무나 좋은 분이신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고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나누어 주었는데 진정한 성탄 선물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뿌린 것을 반드시 거두실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 선물보따리를 피해 갔는데, 옆마을 십대들 3명이 계속 자기들도 달라고 채근하길래 '토라 탐바~(잠깐 기다려~)' 했더니 자기들 언어를 썼다고 엄청 좋아하고 마지막에 그 십대들에게도 남은 선물을 주었더니 고맙다며 다음엔 자기네 마을에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의 요청을 복음의 요청인 줄 믿고 진정 소중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찾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셔서 MFD(청각장애인 시설)에 가서 성탄절 행사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요즘 MFD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은 MFD 친구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탄을 기뻐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 [길에서 자는 이들에게 담요를]

길에서 자는 이들에게 성탄 선물로 150장의 담요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길에서 자고 있었는데 어떤 이는 길에서 위험하게 잠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누워 있는 이들도 깨워서 "이것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어딘가를 하염없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갈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